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동일금속(10986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금속(109860)

고중량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의 축적된 제조기술과 글로벌 고객사 공급 이력 보유

기업정보(2026.06.23 기준)

대표자	오길봉
설립일자	1984년 11월 21일
상장일자	2009년 7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강주물 주조업
주요제품	트랙슈 어셈블리, 텀블러, 아이들러, 어드저스트 컴포넌트, 트랙스프링 어셈블리 등

시세정보(2026.06.23 기준)

현재가(원)	7,2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660
발행주식수	9,100,000주
52주 최고가(원)	8,880
52주 최저가(원)	7,000
외국인지분율	0%
주요주주	오길봉 외 7인, 아이베스트투자(주)

■ 주강 제조 역량과 신규 품목 개발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중

동일금속(이하, 동사)은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 하부주행체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트랙슈, 아이들러, 텀블러, 트랙스프링 등 고하중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건설기계 제조사에 공급하며, PT.DONGIL CASTING과 현대티엠씨를 통해 해외 주강 생산 및 제관 부품 사업을 보완한다. 축적된 제조 경험, 고객사 승인 이력, 고중량 부품 생산능력이 경쟁력이나, 건설기계 경기, 고객의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및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은 관리가 필요하다.

■ 인프라 투자와 해외 OEM 수요 확대, 고효율·친환경·고내구성 부품 수요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

목표시장은 트랙슈 · 아이들러 · 텀블러 · 트랙스프링 등 하부주행체 및 구조 부품 수요가 핵심이다. 해당 시장은 건설경기과 완성장비 생산계획에 민감하지만, 고객 승인과 품질 이력이 중요한 공급 구조로 인해 일정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국내 시장은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거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고효율화 · 친환경화 · 내구성 강화 요구가 부품업체의 기술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 기술·고객 기반의 사업 안정화와 포트폴리오 보완,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 추진 중

동사는 고중량 건설기계용 부품 분야에서 축적한 제조기술과 고객사 공급 이력을 기반으로 전방 건설기계 및 광산장비 수요 회복 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환율, 건설 · 광산 투자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신규 OEM 발굴,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 원가 절감형 공정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편 동사는 배당 유지, 자사주 소각 검토, 자본 효율성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1,104.5	-0.9	123.7	11.2	3.2	0.3	0.2	0.2	7.5	33	17,698	270.5	0.5
2024	859.8	-22.1	6.2	0.7	72.5	8.4	4.8	4.3	13.8	796	18,294	10.2	0.4
2025	917.1	6.7	14.3	1.6	50.5	5.5	3.3	2.8	15.8	554	18,440	14.3	0.4

기업경쟁력

고중량 주강 부품 전문 제조 기반	크롤러 크레인과 초대형 굴삭기 등 고하중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주강 부품을 장기간 생산해 온 전문 제조 역량 보유
글로벌 고객사 공급 및 품질 대응 경험	SUMITOMO, Kobelco, Hitachi 등 해외 건설기계 고객사와의 거래 경험을 통해 고객사별 품질 기준, 납기, 제품 사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축적
국내외 생산거점 기반의 사업 운영 구조	국내 주강 생산·가공 기반과 해외 주강 생산거점, 제관 부품 생산 기능을 함께 보유해 주력 부품 생산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초대형 트랙슈 주조공정 기술	2-cavity 구조, 런너 및 게이트 설계, 개재물 포집, 냉금 적용 등 대형 주강품의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공정기술이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에 적용
하부주행체 부품 제조기술	주조·가공·열처리·검사 공정이 결합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어셈블리, 텀블러, 아이들러 등 고하중 하부주행체 부품 생산
고객 맞춤형 부품 개발기술	고객사별 장비 모델과 운용 조건에 맞춰 어드저스트 컴포넌트, 트랙스프링 어셈블리, 컨트롤로드, TRACK PAD 등 신규 및 개선 부품 개발

시장경쟁력

고객 승인형 시장 내 진입장벽 확보	건설기계용 핵심 부품은 완성장비 업체의 사전 품질 승인과 납품 이력이 중요하므로, 동사의 기존 공급 이력은 신규 업체 대비 경쟁우위로 작용
수출 중심 고부가 부품 시장 대응력	크롤러 크레인 및 초대형 굴삭기용 부품은 글로벌 건설·광산 장비 수요와 연계되어 있어, 동사는 해외 OEM 공급망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한계를 일부 보완
전방 수요 회복 시 실적 반등 가능성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하부주행체 부품과 크롤러 크레인 부품은 건설기계 생산 및 인프라 투자 회복 시 매출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제품군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고중량 주강 부품의 주조·가공·열처리 기술과 글로벌 고객사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크롤러 크레인 및 굴삭기 하부주행체 부품 시장에서 실질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희소성(Rarity) • 고부가 특수주강 부품을 장기간 글로벌 OEM에 공급해 온 이력은 일반 부품업체가 단기간 확보하기 어려운 희소한 사업 기반으로 판단된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주조공정, 품질검증, 고객사 승인, 납품 이력, 인증 기반이 결합된 기술로 설비 투자만으로 모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해외 경쟁업체의 가격·품질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	 조직(Organization) • 연구소, 국내 생산기반, 해외 생산거점 및 품질 대응 체계를 보유하여 핵심 자원을 사업화할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고객 다변화와 공정 효율화가 요구된다.
--	---	--	---

I. 기업 현황

주강 제조 역량과 신규 품목 개발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중

동사는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굴삭기 하부주행체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트랙슈, 아이들러, 텀블러, 트랙스프링 등 고하중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건설기계 제조사에 공급하며, PT.DONGIL CASTING과 현대티엠씨를 통해 해외 주강 생산 및 제관 부품 사업을 보완한다. 축적된 제조 경험, 고객사 승인 이력, 고중량 부품 생산능력이 경쟁력이나, 건설기계 경기, 고객의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및 환율에 따른 실적 변동은 관리가 필요하다.

■ 기업 개요

동사는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문 제조기업으로, 2009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PT.DONGIL CASTING과 현대티엠씨 등 비상장 2개사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본사 생산 기반과 해외 주강 생산 거점, 제관 부품 제조 기능을 함께 보유한 구조다.

수익 창출 구조는 고철과 합금철 등 원재료를 투입해 주강품 및 가공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건설기계 완성차 또는 부품 조달망에 납품하는 형태다. 주요 제품은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어셈블리, 텀블러, 아이들러, 초대형 굴삭기용 특수주강 트랙슈, 굴삭기용 어드저스트 컴포넌트, 트랙스프링 어셈블리, 컨트롤로드, BOOM류 등이다. 해당 품목은 건설기계의 주행 안정성, 하중 지지, 마모 대응에 직접 관여하는 부품으로, 단순 금속 부품보다 소재·구조·열처리·가공 품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요 고객군은 SUMITOMO, Kobelco, Hitachi, CAT, 볼보, HD현대 계열, 두산 등 국내외 건설기계 제조사로 구성된다.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미국·일본 등 해외 고객향 비중이 높고, 굴삭기용 부품은 국내와 해외 수요가 병존한다. 특히 주요 매출처별 결제조건이 선적 후 현금 결제 또는 전자어음으로 구분되어 있어, 해외 수출 중심 품목은 환율과 선적 일정, 국내 납품 품목은 완성장비 업체의 생산계획 및 대금 회수조건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한편, 제품 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는 고철이 대부분이고 합금철(Fe-Si, Fe-Mn 등)이 소량 포함되어, 동사의 원가 구조는 고철 가격, 합금철 가격, 환율, 생산량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간 축적된 주강 제조 경험, 대형 건설기계 부품에 대한 고객사 승인 이력, 일본·미국 고객사와의 거래 기반, 고중량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품질관리 역량에 있다. 다만 사업 특성상 매출이 글로벌 건설기계 경기, 특정 고객사의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되므로 실적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향후 동사는 기존 크롤러 크레인 및 굴삭기용 하부주행체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모델 개발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월	내용
1984.11	법인 설립
1995.09	건설기계장비 주강품으로 주력품 변경(일본 IHI社 수출)
2005.06	세계일류상품 생산인증기업(산업자원부)
2005.06	두산인프라코어, T25 Assembly Idler 공급
2007.04	일본 코벨코社 품질인정서 수상(해외기업 최초)
2009.07	KOSDAQ 시장 상장
2012.10	Manitowoc社 품질 최고 공급업체 선정(주강품 공급업체 최초)
2019.0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으로 지정(지정번호 2019-0181)
2024.02	(주)현대티엠씨 인수(지분 100%)
2024.09	동일캐스팅(주) 흡수합병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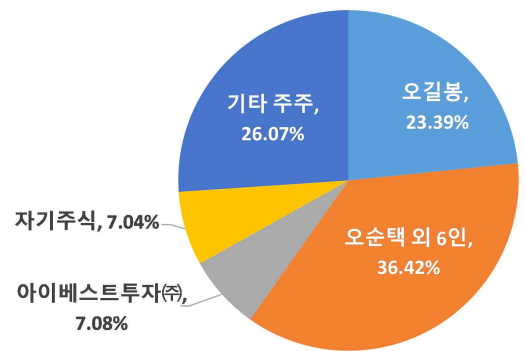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3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오길봉으로, 전체 발행주식(9,100,000주) 중 2,128,301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23.39%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오순택 외 6인의 특수관계자가 3,314,230주(36.42%)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59.81%이다. 한편, 아이베스트투자(주)가 644,253주, 동사가 640,775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372,441주(26.07%)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분 구조는 경영권 안정성이 높은 오너 중심 지배구조로 해석된다. 최대주주 측 지분이 과반을 상회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전략과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반면 일반주주 비중은 26.07%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 평가는 경영 안정성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오길봉	2,128,301	23.39%	최대주주
오순택 외 6인	3,314,230	36.42%	특수관계인
아이베스트투자(주)	644,253	7.08%	
자기주식	640,775	7.04%	
기타 주주	2,372,441	26.07%	
합계	9,100,000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사업 영역은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력 제품은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 등 중대형 건설기계용 부품이다.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 사업은 동사의 대표적인 수출 중심 사업이다.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대형 토목공사, 플랜트, 항만, 에너지 설비, 풍력발전 설치 등 중량물 인양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하부주행체 부품에는 높은 하중 지지력과 반복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된다. 동사는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어셈블리, 텀블러, 아이들러 등을 생산하며, 주요 고객은 SUMITOMO, Kobelco 등 일본계 및 글로벌 크레인 제조사로 구성된다.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사업은 광산용 대형 장비 시장과 직접 연결된다. 초대형 굴삭기는 광산, 대규모 토목현장, 자원개발 현장 등에서 사용되며, 일반 건설장비보다 높은 하중과 마모 환경에 노출된다. 동사는 Hitachi가 생산하는 180톤급 이상 초대형 굴삭기 모델에 적용되는 트랙슈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특수주강 소재와 정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부품군이다. 이 사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영역이나, 특정 고객사의 생산량과 광산 장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굴삭기용 하부주행체 부품 사업은 동사의 주요 매출 기반이며, 주요 제품은 아이들러, 트랙스프링 어셈블리, 어드저스트 컴포넌트, 컨트롤로드 등으로, 굴삭기의 주행 안정성과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제품은 현대, 두산, 볼보, CAT 등 국내외 굴삭기 제조사에 공급되고, 내수와 수출이 병행되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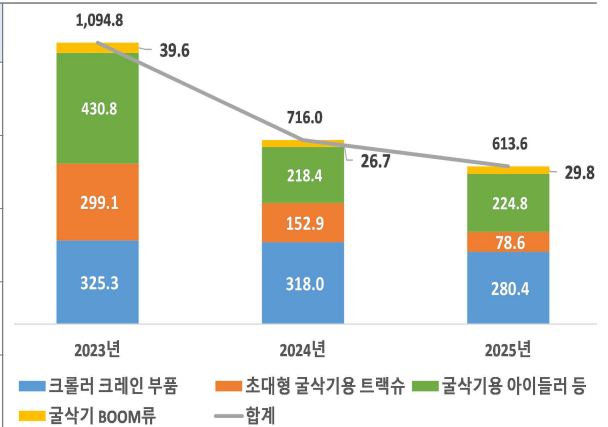
굴삭기용 BOOM 및 ARM류 사업은 제관 부품 중심의 보조 사업으로, 현대티엠씨를 통해 굴삭기용 구조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장 하부주행체 부품 사업을 보완한다. BOOM 및 ARM은 굴삭기의 작업 반경과 굴착 성능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물로, 용접 품질과 소재 강도, 치수 정밀도가 중요하다. 해당 사업은 동사가 하부주행체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굴삭기 구조부품 영역으로 일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간 관계는 주장 제조 역량과 건설기계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과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는 고하중·고내구성 주장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일반 굴삭기용 부품은 상대적으로 넓은 고객군과 내수·수출 병행 구조를 통해 매출 안정성을 보완한다. BOOM 및 ARM류는 제관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굴삭기 고객군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사업보고서 내 매출실적표 총액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크롤러 크레인 부품	325.3	29.7%	318.0	44.4%	280.4	45.7%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299.1	27.3%	152.9	21.4%	78.6	12.8%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430.8	39.3%	218.4	30.5%	224.8	36.6%
굴삭기 BOOM류	39.6	3.6%	26.7	3.7%	29.8	4.9%
제품 매출 합계	1,094.8	100.0%	716.0	100.0%	613.6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 방식은 고객 승인과 장기 공급관계가 중요한 기술영업 중심 구조로, 동사의 제품은 건설기계의 하중과 내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구되는 품질 기준과 납품 안정성을 충족해야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은 고객사별 사양 대응, 품질 검증, 납기 관리, 신규 모델 개발 협의가 핵심이다.

미등기 임원 조직에는 영업총괄과 일본 영업 담당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고객군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본 고객향 크롤러 크레인 및 초대형 굴삭기 부품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일본 영업 조직은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동사의 매출 기반이 특정 해외 고객사의 조달망에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 전략은 품질 신뢰와 공급 지속성, 생산기술 축적에 기반한다.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어셈블리 부품은 기술적 노하우와 전문 생산라인, 고가의 맞춤형 설비투자가 필요해 단기간 내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이는 동사가 고객사와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진입장벽인 반면, 기존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향후 판매전략은 기존 고객사의 공급망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규 개발품을 통한 품목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를 병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특히 CAT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 패드, 볼보 C-ROD, KCC 삼각슈 등 신규 개발 과제는 단순한 연구개발 활동을 넘어 향후 판매 품목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동사는 품질·납기·원가 대응력을 기반으로 기존 수출 거래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굴삭기용 하부주행체 부품과 구조부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해 특정 품목과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 시장 동향

인프라 투자와 해외 OEM 수요 확대, 고효율·친환경·고내구성 부품 수요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

목표시장은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 등 고하중 건설기계로 적용되는 건설용 기계 주강 부품 시장으로, 트랙슈·아이들러·텀블러·트랙스프링 등 하부주행체 및 구조 부품 수요가 핵심이다. 해당 시장은 건설경기과 완성장비 생산계획에 민감하지만, 고객 승인과 품질 이력이 중요한 공급 구조로 인해 일정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국내 시장은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거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고효율화·친환경화·내구성 강화 요구가 부품업체의 기술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당사는 고중량 주강 부품 공급 경험과 해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전방 수요 회복 시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원재료 가격, 환율, 고객사 생산 변동 및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OEM 발굴, 수출시장 확대, 제품 다변화와 원가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건설용 기계 주강 부품 시장의 특성

당사의 목표시장은 건설용 기계 주강 부품 시장으로, 건설 및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구성하는 부품 시장 중에서도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 등 고하중 건설기계로 적용되는 주강 기반 하부주행체 및 구조 부품 시장을 의미한다. 건설용 기계 부품은 건설·토목공사용 기계 제조 산업이 전방산업이고, 금속 재료와 금형 등 소재·가공 산업이 후방산업인 중간재 성격의 시장이다. 따라서 수요는 건설기계 완성장비 제조사의 생산계획, 건설 및 토목 경기, 광산·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장비 교체 및 정비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목표시장은 기술력과 생산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고부하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운용되며, 먼지, 수분, 유류, 진동,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에 따라 건설용 기계 부품은 높은 내구성, 소재 강도, 치수 정밀도, 열처리 품질, 품질 추적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강 부품은 장비의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금속가공 능력뿐 아니라 주조, 소재 배합, 가공, 열처리, 품질검사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시장 구조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객 승인형 공급구조가 결합된 형태다. 건설기계 부품은 장비 종류와 모델별 사양이 다양해 일괄 대량생산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고객사별 설계 기준과 품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완성장비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사전 품질 검증과 납품 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일단 고객사 공급망에 편입되면 장기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존 거래처 관리와 신규 OEM 확보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가격 및 수익성은 원재료 가격, 생산량, 환율, 고객사별 단가 협상력에 영향을 받는다. 건설용 기계 부품 산업은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하고, 품목이 광범위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해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당사는 고철과 합금철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이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상 환율 변동도 수익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국내 시장은 성숙기 특성을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안정적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설용 기계 부품 시장은 2023년 3조 2,212억 원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이 전망되고, 글로벌 건설·광산기계 시장은 2024년 1,480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1,7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목표시장이 고성장 산업이라기보다 기존 고객 기반, 품질 신뢰성, 생산 효율성, 수출 거래선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안정형 산업에 가깝다는 의미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가장 큰 성장 요인은 전방 건설기계 수요의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다. 건설용 기계 부품 산업은 건설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철도·항만·플랜트·에너지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가 확대될 경우 완성장비 생산과 부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건설경기 둔화, 프로젝트 지연,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은 완성장비 발주와 부품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고효율화, 친환경화, 내구성 강화가 주요 흐름이다. 건설기계는 고부하 작업 특성상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이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주요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엔진, 에너지 공급장치 이원화, 전기에너지 사용, 유압시스템 고효율화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진·유압 부품뿐 아니라 하부주행체와 구조 부품에도 장수명화, 신뢰성, 품질 안정성 요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강 하부주행체 부품 시장에서는 고객사별 맞춤 대응과 품질 검증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설기계는 운용환경이 거칠고 부품 손상 시 장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성장비 업체는 부품 공급사를 선정할 때 가격뿐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기존 납품 이력, 사후 대응능력을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동사처럼 장기간 특정 장비용 주강 부품을 공급해 온 업체는 고객 승인 이력과 품질 데이터를 경쟁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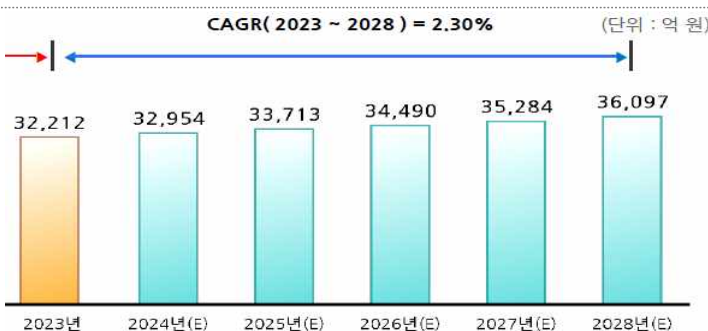
시장 촉진요인은 해외 진출 확대와 수출 거래선 다변화다. 건설용 기계 부품 시장은 국내 건설경기 의존할 경우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외 OEM 업체 발굴과 수출 확대가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제시된다. 특히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과 초대형 굴삭기용 주강 부품은 글로벌 건설·광산 장비 제조사의 생산계획과 연결되어 있어, 해외 고객 기반을 확보한 기업은 국내 경기 둔화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저해요인도 분명하다. 건설용 기계 부품 산업은 건설경기 의존도가 높아 생산 및 판매계획의 변동성이 크며,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인해 탄력적 생산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높은 수출 비중은 환율 변동 위험을 수반하고,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압력도 발생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고객사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사는 고중량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에 특화된 공급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방 건설기계 수요 회복과 해외 OEM 공급망 확대 시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건설경기 변동, 고객사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환율 및 해외 경쟁사의 가격·품질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존 거래처 관리, 신규 고객 발굴, 제품 다변화와 원가·생산 효율성 개선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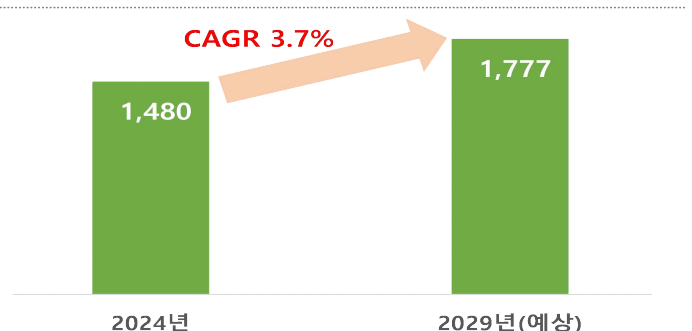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건설용 기계 부품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2] 글로벌 건설·광산기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고중량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에 특화된 주조·가공·열처리 기술 보유

동사는 건설기계용 고중량 주강 부품에 특화된 주조·가공·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초대형 굴삭기용 특수주강 슈, 굴삭기용 하부주행체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은 반복 하중과 고마모 환경에 대응하는 소재·주조공정 설계, 정밀가공, 열처리 및 품질검사 역량으로, 고객사별 장비 사양에 맞춘 제품 개발과 2-cavity 구조 등 제조효율 개선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연구개발은 신규 모델 대응, 공정 효율화, 소재 특성 분석, 내구성 검증, 품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선급·품질·환경 인증과 주요 고객사 승인 이력은 글로벌 건설기계 공급망 내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기술은 건설기계용 고중량 주강 부품의 주조·가공·열처리 기술에 기반한다. 동사의 생산 제품은 장비의 하중 지지, 주행 안정성, 충격 흡수, 마모 대응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부품군이다. 이들 부품은 운용 환경상 반복 하중과 충격, 고마모 조건에 노출되므로 단순 주조 능력보다 소재 배합, 사형 설계, 용탕 주입, 탈사, 절단·가우징, 열처리, 정밀가공 및 검사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동사는 초대형 굴삭기와 크롤러 크레인 등 대형 장비에 적용되는 트랙슈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는 광산용 장비와 같이 고부하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며, 제품의 강도와 내구성뿐 아니라 장비 모델별 형상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동사는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의 초대형 굴삭기 모델에 적용되는 트랙슈 공급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계 주강업체와 기술·품질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는 동사의 주강 기술이 범용 부품 생산 수준을 넘어 고중량 특수부품 생산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보유기술 중 주목되는 부분은 초대형 무한궤도용 트랙슈의 제조효율 개선 기술이다. 관련 특허에서는 하나의 사형 내부에 2개의 캐비티를 형성하는 2-cavity 구조, 곡선형 런너 설계, 복수 게이트를 통한 용탕 유입, 개재물 포집부 구성, 냉금 적용 등 주조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조방법이 확인된다. 이는 대형 트랙슈 생산 시 원가 절감, 후처리 공정 단순화, 품질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사별 장비 사양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SUMITOMO, Kobelco 등 일본계 고객,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는 Hitachi, 굴삭기용 부품은 현대, 두산, 볼보, CAT 등 국내외 고객과 연결되어 있다. 건설기계 부품은 완성장비 업체의 사전 승인과 납품 이력이 중요한 시장이므로, 동사의 장기간 공급 경험과 고객사별 품질 대응력은 신규 진입업체 대비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국내 본사 주강 생산 기반과 해외 주강 생산 거점, 제관 부품 생산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본사는 주강품 제조와 정밀가공·조립 기능을 담당하며, PT.DONGIL CASTING은 크롤러 크레인용 및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생산을 보완하고, 현대티엠씨는 굴삭기용 BOOM 및 ARM 등 제관 부품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생산 구조는 하부주행체 부품 중심의 기존 주강 사업을 유지하면서 굴삭기 구조부품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만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고중량 주강 부품과 특정 고객사향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 적용 범위가 건설기계 경기와 고객사 생산계획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은 기존 주강 제조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장비 모델 대응, 공정 자동화, 원가 절감형 주조기술 고도화, 고객사 다변화와 연계된 제품 개발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활동은 건설기계용 고중량 주강 부품의 품질 안정성, 생산 효율성, 고객사별 사양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별도 신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주력 제품의 성능 개선, 제조공정 최적화, 신규 모델 대응, 고객 클레임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사는 고객사별 신규 품목 개발과 제품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코벨코 소켓, 볼보 150톤급 붐배어링, 현대 125톤급 ADJUST 등은 특정 고객사의 장비 사양과 사용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과제로, 고객사별 설계 요구를 반영해 신규 부품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크롤러 크레인 및 굴삭기 하부주행체 부품 중심의 사업 기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형 굴삭기와 초대형 장비용 부품 개발은 고중량 주강 부품 시장에서 적용 모델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조공정 효율화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개발도 지속되고 있다. CAT6030 T/PAD 압탕 넥 다운 코어 개발, 260톤 굴삭기용 초대형슈 2-cavity 개발 등은 대형 주강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처리 부담과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형 연구로 볼 수 있다. 압탕 구조 개선은 절단·가우징 등 후공정의 작업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2-cavity 방식은 하나의 사형에서 복수 제품을 성형하는 구조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균일성 확보에 유리하다.

소재 특성과 기계적 성질 검증을 통한 품질 신뢰성 확보가 주요 연구 영역으로 확인된다. 재질별 실체 기계적 성질 분석은 수축률, 연신율, 충격강도 등 주강 소재의 특성을 비교·검토해 제품 품질과 원가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는 연구다. 고중량 건설기계 부품은 장시간 고부하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소재의 기계적 성질과 열처리 결과가 제품 수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재별 성능 분석은 신제품 개발뿐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고객사 승인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기존 납품 제품의 외관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코벨코 트랙슈 외관개선품 개발은 고객 클레임 감소와 제품 품질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은 기능적 내구성이 핵심이지만, 글로벌 고객사 공급망에서는 외관 품질, 치수 안정성, 검사 기준 충족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동사는 고객사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제품의 외관, 가공 품질, 검사 대응력을 개선하는 방향의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현황

동사는 대형 주강품 생산에서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조공정 설계와 관련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사형 내부에 2개의 캐비티를 구성하고, 상·하형의 런너 구조와 복수 게이트를 설계하며, 개재물 포집부와 냉금 등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형 주강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탕 흐름 불균일, 개재물 혼입, 후처리 부담,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로 해석된다. 이는 동사의 특허가 제품 디자인 자체보다 제조공정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증 측면에서는 주강품 제조공장 인증,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주요 고객사별 품질 승인 이력을 통해 고중량 건설기계 부품 공급에 필요한 제조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영국 Lloyd's, 한국선급, Bureau Veritas, 일본 NK, 독일 GL, 미국 BV 등 선급·해외 인증기관의 주강품 제조공장 인증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SO 9001 및 ISO 14001 등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품질·환경 기준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코벨코, 스미토모, 히타치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열처리 공장 인증 및 품질 인정을 받은 이력은 완성장비 업체 공급망 진입과 장기 거래 유지에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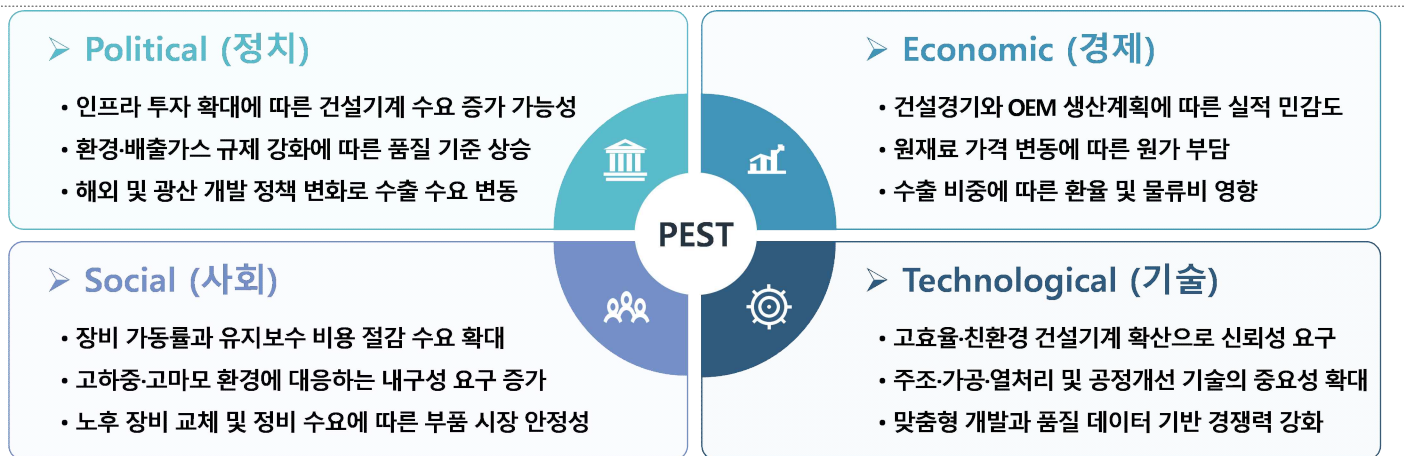
동사는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각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건설·토목 프로젝트 발주, 광산 개발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 도로·철도·항만·에너지 설비 등 대형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경우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 수요가 증가해 동사의 하부주행체 부품 수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배출가스 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 기준 강화는 완성장비 업체의 설계 및 품질 기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사 역시 고객사 요구에 맞춘 품질·내구성·납품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사의 실적은 건설경기, 광산·인프라 투자, 글로벌 건설기계 OEM의 생산계획에 민감하게 연동된다. 건설용 기계 부품 시장은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해외 고객 기반을 보유한 기업에는 수출 확대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동사는 고철과 합금철 등 원재료 비중이 높은 주강 부품 제조업체로서 원재료 가격, 환율, 물류비, 생산가동률 변화가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상 환율 변동과 해외 고객사의 발주 변동은 지속적인 관리 요인이다.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장비의 가동률, 내구성,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주요 구매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롤러 크레인과 굴삭기는 고부하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운용되므로, 하부주행체 부품에는 높은 내마모성, 충격 저항성, 품질 안정성이 요구된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와 정비 수요는 부품 시장의 안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는 기존 고객사 납품 이력과 품질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사의 품질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사후 대응력과 신규 모델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건설기계 산업은 고효율화, 친환경화, 전동화, 디지털 운용 확산에 따라 부품 신뢰성과 품질 추적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고중량 주강 부품의 주조·가공·열처리 기술, 초대형 트랙슈 제조공정 특허, 고객사별 제품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cavity 구조, 압탕부 개선, 소재 특성 분석, 내구성 검증 등은 생산성 및 품질 안정성 확보와 연결된다. 향후에는 기존 주강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원가 절감형 공정기술, 고객 맞춤형 신규 부품 개발, 품질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대외환경 영향으로 외형 변동성 나타났으나 재무안정성 유지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1,104.5억 원, 2024년 859.8억 원, 2025년 917.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굴삭기용 아이들러·트랙스프링·컨트롤로드는 2025년에 소폭 회복되었다. 수익성은 매출원가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영업이익률 회복이 제한적이었으나, 금융수익이 순이익을 일정 부분 보완하며 흑자를 유지하였다. 재무안정성은 2025년 부채비율 15.8%, 자기자본비율 86.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제품 매출 증가하며 기타 해외 매출 기반 확대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1,104.5억 원, 2024년 859.8억 원, 2025년 917.1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2.1% 감소하며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하여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동사의 주요 제품별 매출액(총액기준)을 살펴보면 [크롤러 크레인 부품]은 2023년 325.3억 원, 2024년 318.0억 원, 2025년 280.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도 2023년 299.1억 원에서 2024년 152.9억 원, 2025년 78.6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은 2023년 430.8억 원, 2024년 218.4억 원으로 감소 후, 2025년 224.8억 원으로 소폭 회복되었다. [굴삭기 BOOM류]는 2023년 39.6억 원, 2024년 26.7억 원, 2025년 29.8억 원으로 2024년 감소 이후 일부 회복되었으나, 전체 매출 내 비중은 크지 않았다. 상품은 2023년 10.0억 원, 2024년 6.5억 원, 2025년 6.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매출은 각각 0.3억 원, 0.3억 원, 0.5억 원을 기록하였다.

유형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제품매출이 857.4억 원, 상품매출이 1.0억 원, 기타매출이 1.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제품매출이 910.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품매출 2.3억 원, 기타매출 4.6억 원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국내 매출이 2024년 239.7억 원에서 2025년 40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외형 회복을 견인하였으나, 일본 매출은 434.9억 원에서 298.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해외 매출은 185.2억 원에서 214.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85.7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 218.2억 원 대비 30.9% 증가하였다. 대내외적 영향으로 외형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최근 제품매출 회복 흐름과 국내·기타 해외 매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어 주력 제품군을 중심으로 매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원가율 상승하였음에도 영업흑자 유지

동사의 3년간 영업이익은 2023년 123.7억 원, 2024년 6.2억 원, 2025년 14.3억 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11.2%, 0.7%, 1.6%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매출원가율은 2023년 84.8%에서 2024년 92.7%, 2025년 92.9%로 높아지며 2024년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었다. 다만, 판매비율은 2023년 4.0%, 2024년 6.5%, 2025년 5.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영업흑자가 지속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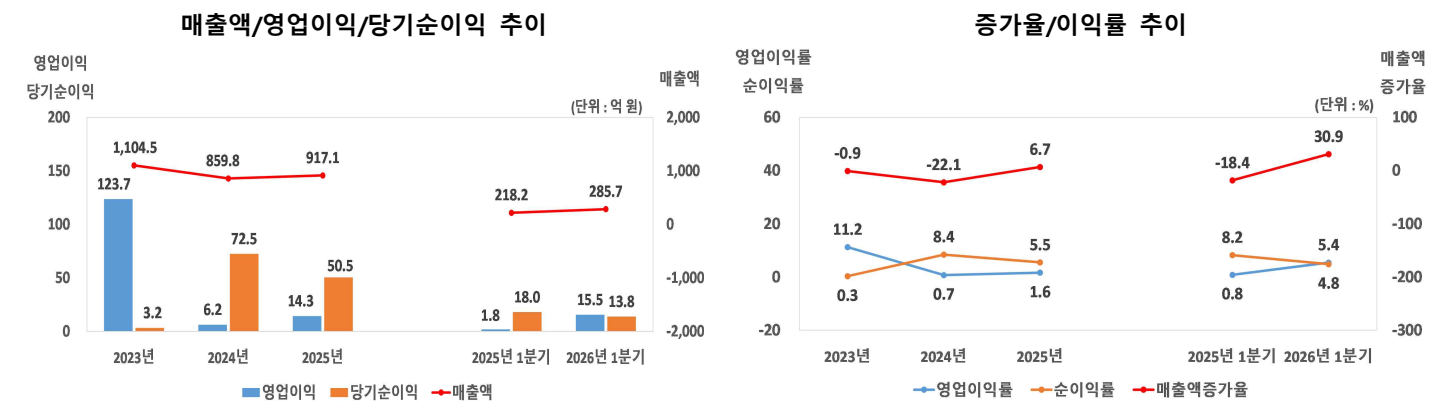
동일금속(109860)

당기순이익은 2023년 3.2억 원, 2024년 72.5억 원, 2025년 50.5억 원이며, 순이익률은 각각 0.3%, 8.4%, 5.5%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양호했음에도 금융자산평가손실이 170.7억 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배당금수익 및 금융자산평가이익 등의 금융수익이 순이익을 보완하며 흑자가 유지되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15.5억 원, 당기순이익은 13.8억 원을 기록하였다. 종합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2025년 매출 증가와 판관비율 완화에 따라 영업이익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원재료 가격, 생산 효율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자기자본비율로 양호한 재무지표

동사의 총자산은 2023년 1,618.6억 원, 2024년 1,763.6억 원, 2025년 1,808.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206.7억 원, 2024년 81.6억 원, 2025년 59.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동비율은 2025년 370.0%로 높은 편으로 단기 유동성 대응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2025년 재고자산은 220.6억 원, 유형자산은 518.5억 원 규모였으며, 2025년 유형자산 취득 및 재고자산 증가가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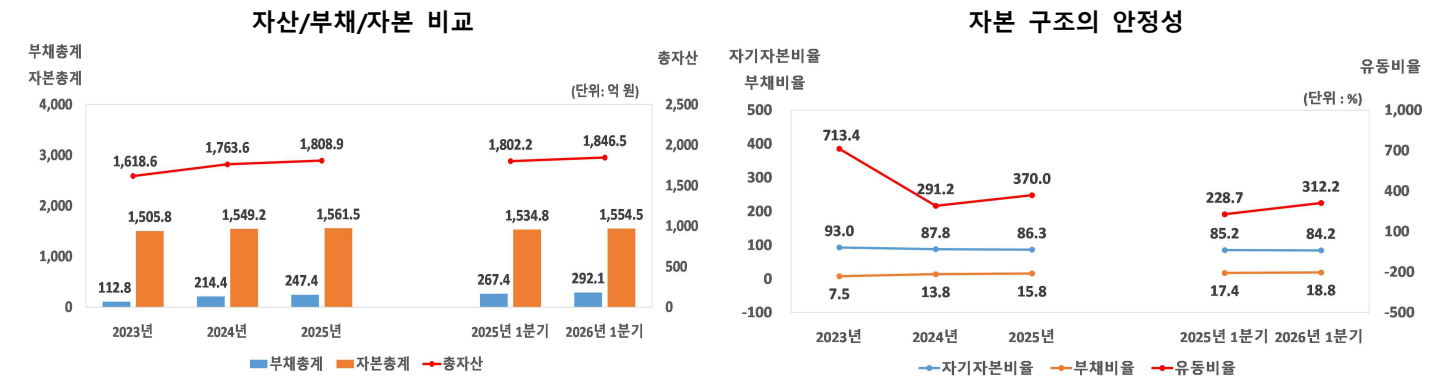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112.8억 원, 2024년 214.4억 원, 2025년 247.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7.5%, 2024년 13.8%, 2025년 15.8%로 상승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다. 2025년 단기차입금은 15.0억 원, 장기차입금은 90.0억 원으로 총차입금은 10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단기차입금 90.0억 원이 2025년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만기 연장되었다.

자본총계는 2023년 1,505.8억 원, 2024년 1,549.2억 원, 2025년 1,561.5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93.0%, 2024년 87.8%, 2025년 86.3%로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2024년에는 결손금에서 이익잉여금 151.7억 원으로 전환되며 내부유보 기반이 확대되었다. 다만 2025년에는 배당금 27.1억 원이 반영되었고 해외사업환산손익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지표는 유동비율 312.2%, 부채비율 18.8%, 자기자본비율 84.2%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자기자본비율, 영업활동현금흐름 흑자 흐름을 고려하면 재무안정성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1,104.5	859.8	917.1	218.2	285.7
매출액증가율(%)	-0.9	-22.1	6.7	-18.4	30.9
영업이익	123.7	6.2	14.3	1.8	15.5
영업이익률(%)	11.2	0.7	1.6	0.8	5.4
순이익	3.2	72.5	50.5	18.0	13.8
순이익률(%)	0.3	8.4	5.5	8.2	4.8
부채총계	112.8	214.4	247.4	267.4	292.1
자본총계	1,505.8	1,549.2	1,561.5	1,534.8	1,554.5
총자산	1,618.6	1,763.6	1,808.9	1,802.2	1,846.5
유동비율(%)	713.4	291.2	370.0	228.7	312.2
부채비율(%)	7.5	13.8	15.8	17.4	18.8
자기자본비율(%)	93.0	87.8	86.3	85.2	84.2
영업현금흐름	122.2	122.8	60.7	18.0	-10.0
투자현금흐름	4.9	-85.9	-56.1	-17.9	1.8
재무현금흐름	-54.9	-162.9	-27.1	0.0	15.0
기말현금	206.7	81.6	59.0	82.0	66.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2023년 1,105.1억 원에서 2025년 621.0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6년에는 768.6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2025년에는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와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주요 부품의 수요 감소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전방산업 수요 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매출 회복은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하부주행체 부품의 반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문 매출은 2025년 224.8억 원에서 2026년 361.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사의 일반 굴삭기용 부품 사업이 단기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굴삭기용 아이들러, 트랙스프링, 컨트롤로드 등은 내수와 수출이 병행되는 품목으로, 특정 초대형 장비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일반 굴삭기 생산 및 교체 수요가 회복될 경우 동사의 매출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크롤러 크레인 부품은 2023년 325.3억 원에서 2025년 280.4억 원으로 완만하게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298.8억 원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해당 부문은 해외 고객향 비중이 높은 수출 중심 사업으로, 글로벌 크롤러 크레인 생산계획과 대형 인프라·플랜트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2026년 예상치는 저점 이후 안정화 국면으로 볼 수 있고, 기존 고객사 공급망 내 지위 유지가 실적 방어에 핵심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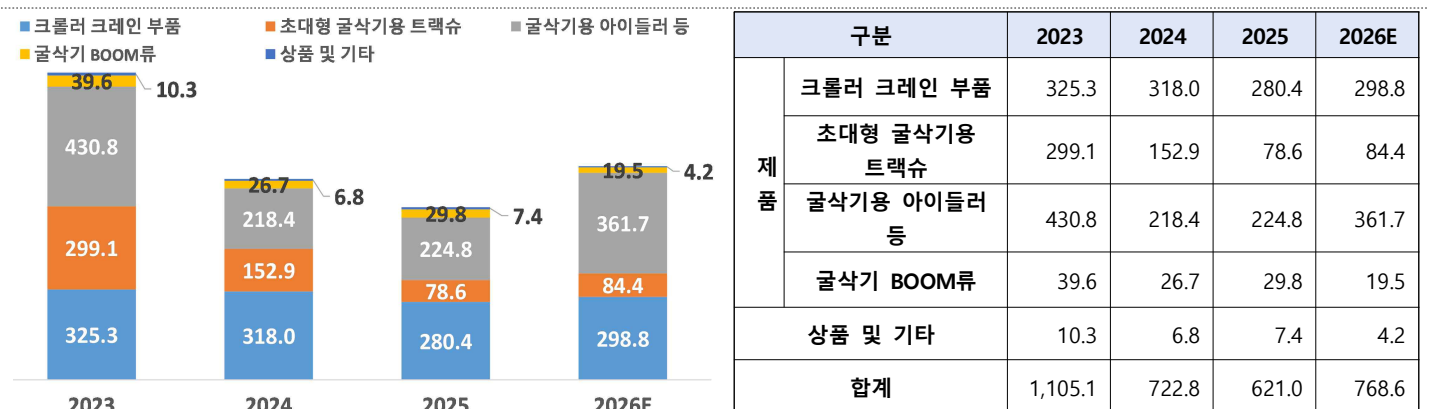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는 2023년 299.1억 원에서 2025년 78.6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6년에도 84.4억 원으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문은 광산용 초대형 장비와 특정 글로벌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 변동성이 크다. 기술적 진입장벽은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객사의 장비 발주와 광산 투자 사이클 회복 여부가 실적 개선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굴삭기 BOOM류와 상품 및 기타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BOOM류는 2025년 29.8억 원에서 2026년 19.5억 원으로, 상품 및 기타도 7.4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매출 구조상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하부주행체 부품의 회복이 중요한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며, 크롤러 크레인 부품은 안정적 보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의 회복이 제한적이고, 고객사 생산계획 및 건설·광산 장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향후 실적은 굴삭기용 부품 수요 회복 지속성, 해외 고객사 발주 확대,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사업보고서 내 매출실적표 총액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술·고객 기반의 사업 안정화와 포트폴리오 보완,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가치 제고 추진 중

동사는 고중량 건설기계용 부품 분야에서 축적한 제조기술과 고객사 공급 이력을 기반으로 전방 건설기계 및 광산장비 수요 회복 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사 생산계획, 원재료 가격, 환율, 건설·광산 투자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신규 OEM 발굴,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 원가 절감형 공정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편 동사는 배당 유지, 자사주 소각 검토, 자본 효율성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평가는 사업 변동성 완화와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조직 및 영업 측면에서 해외 고객 대응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사는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과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계 및 글로벌 건설기계 고객사와의 거래 기반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일본 영업 담당 등 고객사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해외 OEM 공급망 내 지위 유지와 신규 모델 대응에 필요한 영업·기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완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동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하여, 보통주 1주당 32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배당금 산정은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2026년 3월 공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에서 시가배당률은 4.02%로 기재되었다. 이는 실적 변동성이 존재하는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주주환원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본 효율성 개선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동사는 향후 성장, 투자,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당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당 외에도 자사주 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배당 지급을 넘어 보유 자기주식 활용, 자본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사는 자기주식 중 일부에 대해 소각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주주환원 정책이 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활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주식 수 조정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실행 여부와 규모는 경영환경, 투자 필요성, 현금흐름, 이사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동사의 변화는 사업구조 안정화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목표시장에서는 고중량 건설기계용 주강 부품에 대한 기술적 진입장벽과 전방산업 변동성이 병존하는 사업환경이 전망된다. 동사는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와 초대형 굴삭기용 특수주강 슈 등 고부하 환경에 적용되는 제품군에서 주조·가공·열처리 기술과 고객사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건설기계 OEM의 생산 회복,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광산장비 수요 회복이 나타날 경우 동사의 주력 부품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건설용 기계 부품 시장은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며, 고객사 생산계획과 건설·광산 투자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와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기술적 특화도가 높지만 특정 고객사 및 특정 장비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은 기존 고객사 공급망 유지뿐 아니라 신규 OEM 발굴, 고객사별 신규 모델 대응, 수출시장 확대, 교체·정비 부품 시장 대응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굴삭기용 하부주행체 부품과 제관 부품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는 고부가 특수부품 성격이 강하지만 수요 변동성이 큰 반면, 굴삭기용 아이들러, 트랙스프링, 컨트롤로드 등은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매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대티엠씨 편입을 통해 확보한 BOOM·ARM 등 제관 부품 영역은 기존 주장 부품 중심 구조를 보완할 수 있으나, 고객 다변화와 생산 효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고내구성, 품질 안정성, 생산 효율성 확보가 지속적인 경쟁요소가 될 전망이다. 건설기계 부품은 고하중, 충격, 진동, 마모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되므로 소재 특성, 열처리 품질, 치수 정밀도, 품질 추적성이 중요하다. 동사는 초대형 트랙슈 제조공정, 2-cavity 구조, 압탕부 개선, 소재 특성 분석, 내구성 검증 등 공정 및 품질 개선형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원가 절감형 주조기술과 품질 데이터 기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수익성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동사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 유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방산업 변동성이 큰 사업 구조에서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력 사업의 회복 여부뿐 아니라 배당의 지속 가능성, 자사주 소각 실행 여부, 자본 효율성 개선 수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동사의 대외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공시하였고, 안정적인 배당 수준 유지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지속적인 영업현금 창출과 투자 여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보다 사업 경쟁력 유지와 재무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2024년 사업구조 재편 이후 기존 주장 부품 사업과 제관 부품을 안정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에는 고객 다변화,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 생산 효율성 개선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배당 유지, 자사주 소각 검토, 자본 효율성 개선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평가는 고중량 주장 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 변동성 완화,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의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금속(10986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6.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동일금속	X	X	X